



제2부

화보

-

1995 ~ 2025

1995



1.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발족(서울대교구청 회의실, 1995. 2. 28)

서울대교구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구성원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증오를 사랑으로, 불화를 화해로, 분단을 일치로 이끌기 위해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최창무 주교)를 설치했다. 2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는 민족화해를 위한 기원 미사, 남북공동기도문, 민족화해학교, 북한교회와의 연계 추진 등에 대한 사업 계획안을 검토하고 바로 다음 날인 3월 1일 최창무 주교가 발족취지문을 발표하고 공식 발족을 선언했다.

* 이날 회의 참석자는 김수환 추기경, 최창무 주교, 김성태 신부(통일사목연구소), 오태순 신부(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장덕필 신부(명동주임), 염수정 신부(교구 사무처), 김인성 신부(평신도사목국), 박기주 신부(선교국), 김윤태 신부(평화신문), 이재돈 신부(환경사목), 이기우 신부(빈민사목), 유수일 신부(남자수도회 장상연합회), 김애라 수녀(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이관진 회장(서울평협), 조광 교수(고려대), 노길명 교수(고려대), 이윤자 국장(가톨릭신문), 박상진(그린기획), 윤여덕 교수(서강대) 이상 19명이다.



2. 제1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명동대성당, 1995. 3. 7)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특별 지향을 갖고 매주 화요일 미사를 봉헌하기로 했다. 첫 미사 집전을 맡은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는 우리 이웃, 형제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화해하고 일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미워하는 자와도 하나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제쳐 놓으면 바로 예수님을 제쳐 놓는 것입니다.”라고 강론했다.



3. 민족화해학교 제1 단계 1기 교육 개설(명동대성당 문화관, 1995. 1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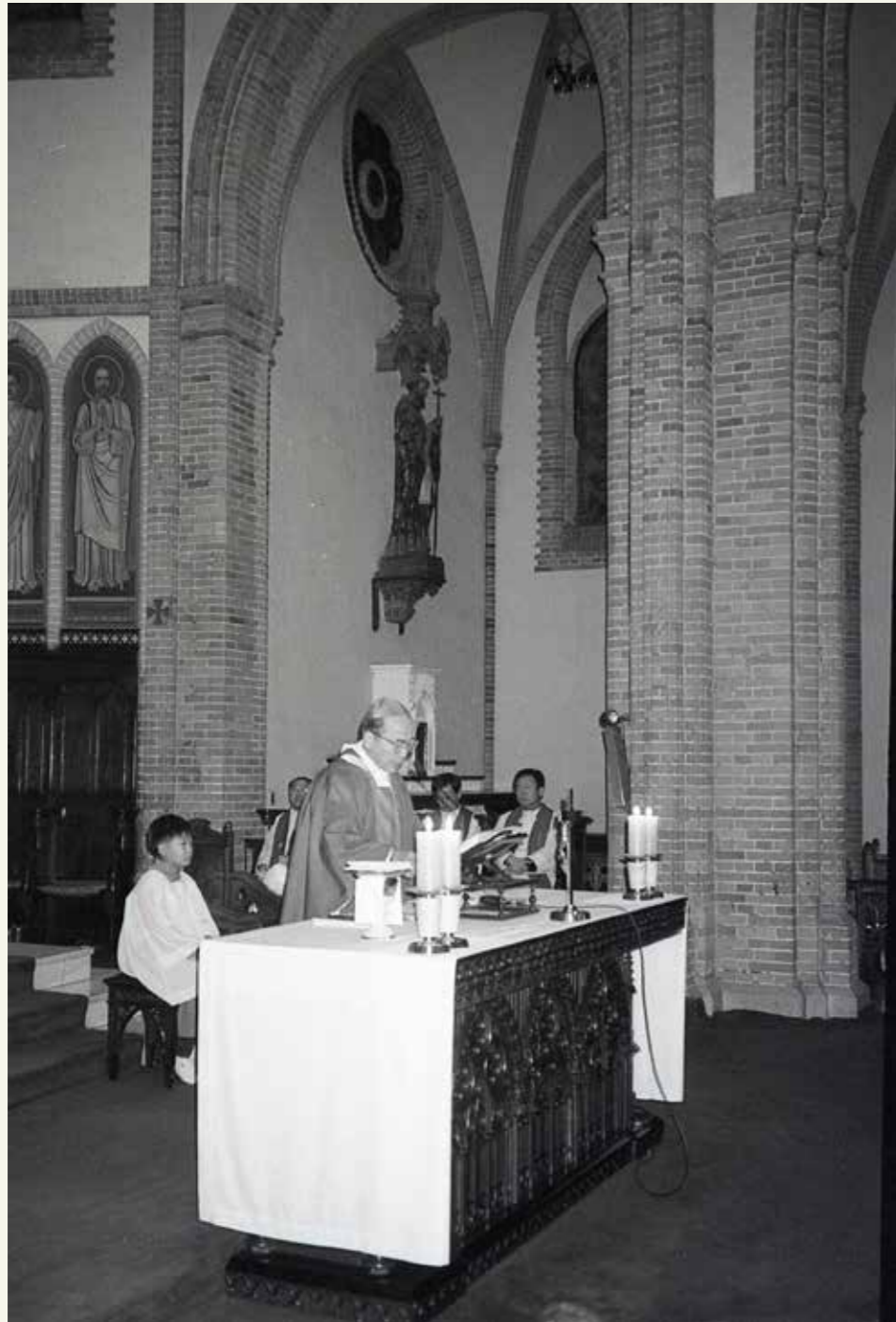
통일을 준비하는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민족화해학교의 제1 단계 1기 교육은 '세계질서의 변화와 민족분단 상황의 진단', '북한체제의 이해와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통일을 위한 준비와 교회의 역할'이라는 대주제 아래 26개 강좌로 진행됐다.



4. 남북 해외 천주교인 뉴욕 세미나(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시 힐튼호텔, 1995. 10. 27-11. 2)

'조국 통일을 위한 천주교인들의 역할'이라는 학술 모임의 형태로 남북한 천주교인의 첫 만남이 개최된 힐튼 호텔 앞에서 왼쪽부터 이강렬, 손병두, 장덕필 신부, 차성근(장충성당 회장), 최창무 주교, 박창득 신부, 장재철(조선천주교인협회 위원장), 박기호, 김유철(조선천주교인협회 부부장), 조광, 최창화 신부, 이윤자, 이창재 중신부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남측 참가자는 최창무 주교를 비롯하여 장덕필 신부, 최창화 신부, 손병두, 조광, 이윤자, 이강렬이었고, 북측은 장재철, 차성근, 김유철, 전용렬(조선천주교인협회 상무위원), 김배화(조선 해외동포원우회 참사), 그리고 미주 동포 대표로 박창득 신부, 염봉덕 신부, 이창재 중신부제, 박기호, 이재진이 참석했다.



5.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봉헌 1주년 기념미사(명동대성당, 1996. 3. 5)

1995년 3월부터 매주 화요일 봉헌되어 온 화해 미사가 1주년을 맞아 특별미사를 봉헌했다. 최창무 주교가 집전한 이 날 미사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원하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에 보다 많은 사람의 동참을 호소했다.



6. 민족화해위원회 헌판식(명동 가톨릭회관, 1996. 8. 13)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최창무 주교(중앙)와 봉두원 민족화해학교 공동대표(좌)가 헌판을 가렸던 막을 치우며 환하게 웃고 있다.



7. 북녘 동포와 국수 나누기 운동 성금 전달(대한적십자사, 1996. 12. 30)

민화위 위원장 최창무 주교와 운영위원장 오태순 신부가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하여 강영훈 총재에게 '북녘 동포와 국수 나누기 운동'으로 모아진 성금 6천만 원을 전달하고 있다.

1997



8. 민족화해학교 제2 단계 1기 개강(명동대성당 문화관, 1997. 3. 19)

남북의 심화된 갈등을 치유하며 서로 간의 무지와 오해를 극복하고 참된 화해와 일치, 새로운 공동체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1995년 시작된 민족화해학교 1단계 교육에 이어 2단계 교육이 3월 19일에 개강하여 6월 25일까지 진행됐다. 개강일에 김수환 추기경은 '통일사목의 의의와 사명'을, 최창무 주교는 '민족화해와 교회 공동체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9. 북한동포돕기 옥수수 1만 톤 보내기 범국민 캠페인(명동상업은행 앞, 1997. 3. 28)

1997년 봄 북한의 급박한 대량 아사 위기로 인하여 6대 종교(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와 대한적십자사, 시민사회단체, 국제구호단체가 공동으로 옥수수 1만 톤 보내기 범국민 모금을 전개했다.



10. 북한동포돕기 감자 보내기 모금 전달식(강원도 평창군청, 1997. 3. 31)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오태순 신부)를 비롯하여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법륜 스님), 한국기독교 북한동포후원연합회(심군식 목사), 원불교강남교당(박청수 교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대한적십자사, 강원도 평창군민의 모금으로 구입한 감자 1,690톤을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전달하여 북한의 조선천주교인 협회,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에 보냈다.



11. 북한동포돕기 옥수수 보내기 범국민 캠페인 1차분 전달식(중국 단동 기차역, 1997. 5. 20)

오태순 신부가 서경석 목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와 손을 맞잡고 옥수수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민화위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한국기독교북한동포돕기후원연합회 식량은행,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1만 5천 톤의 옥수수를 길림성에서 구입한 후 중국 단동 기차역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12. 남북 천주교인 북경 세미나(중국 북경 캄핀스키 호텔, 1997. 6. 4-7)

오태순 신부가 장재철 위원장(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에게 『매일미사』를 전달하고 있다. 남북 천주교인의 두 번째 세미나 주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천주교인들의 역할'과 '남북 천주교 신자 사이의 교류와 협력'으로 진행됐다.

* 남측 참가자는 최창무 주교, 장덕필 신부, 오태순 신부, 류덕희(서울명협 회장), 조광, 이윤자, 이강렬(평화신문)이, 북측은 장재철, 한인철(조선종교인협회 사무국장), 신삼호(조선종교인협회 위원)가 참석했다.



13. 북한동포돕기 성금 대한적십자사에 전달(대한적십자사, 1997. 12. 24)

민화위 위원장 최창무 주교와 오태순 신부가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하여 정원식 총재에게 북한형제돕기 성금 1억 원을 전달하고 있다.

1998



14. 제1차 교황님과 함께한 국제 단식 모금, 옥수수 전송식(중국 단둥 기차역, 1998. 4. 27)

오태순 신부, 장옥곤 신부(단둥 천주교회 주임)가 옥수수를 실은 열차가 출발하는 때에 맞추어 단둥 기차역에서 축복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민화위는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 단식 모금운동'을 전개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비롯하여 세계 90여 개의 도시가 참여한 '북한 동포를 위한 국제 단식의 날' 행사를 진행하여 마련된 성금을 통해 처음으로 남북 교회를 창구로 직접 지원을 성사했다.



15. 민족화해를 위한 특별 대미사(명동대성당, 1998. 8. 23)

민화위 위원장 최창무 주교의 주례(우측 두 번째)로 오른쪽부터 통일사목위원회 총무 이기현 신부, 민화위 상임위원장 오태순 신부, 명동대성당 주임 장덕필 신부가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이 미사에서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었던 민화위와 통일사목위원회를 서울 민화위 산하에 결합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 준비 운동을 동시에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16. 민족화해위원회 최초의 사목적 북한 방문(1998. 5. 11-22)

분단 이후 북한 돕기 운동의 실질적 책임자이자 한국교회의 고위 성직자인 주교의 사목적 성격을 띤 최초의 방북이다. 방문자는 최창무 주교를 비롯하여 오태순 신부, 이기현 신부, 류덕희, 조광, 이윤자, 이경렬로 장충성당에서 북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다.



17. 평양 순안공항에서 최창무 주교와 장재철 위원장.



18. 장충성당에서.



19.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식량 지원 협의 의향서 교환(중국 대련, 1998. 9. 17)

민화위 상임위원장 오태순 신부와 큰물피해대책위원회 양정(揚程) 담당 부위원장 남영애가 식량 지원에 관한 합의서와 의향서를 교환하고 있다. 민화위에서는 대북지원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기존에 소통하던 조선천주교인협회 외에 추가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20.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통일사목위원회 공식 통합 출범(교구청 소회의실, 1998. 11. 28)

민화위 위원장 최창무 주교를 중심으로 새로이 민화위 본부장을 맡은 이기현 신부(좌)와 그동안 위원장을 맡았던 오태순 신부(우)가 서로 손을 모으고 있다. 통일사목위원회와 민화위를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공식 통합 출범하는 순간이다.



21. 의료지원 준비를 위한 북한 방문(1998. 12. 12-15)

민화위 본부장 이기현 신부가 큰물피해대책위원회 양정 담당 부위원장 남영애와 '남포시 강서구역 량정사업소 생물식량공급소'를 방문하여 식량 지원 배급 현황을 확인하고 나오는 길이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성사된 평양 방문은 식량 지원 배급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가톨릭 중앙의료원 원장 이성만 신부, 성바오로병원 원장 김기순 수녀와 동행하여 의료지원을 위한 사전 답사도 병행했다.



22. 북한 어린이 돕기 자선 음악회(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999. 9. 22)

민족화해위원회는 굶주림에 고통을 겪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북한의 이름 모를 친구에게'라는 주제로 자선 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조은희의 지휘로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합창단과 이탈리아의 성악가와 반주자가 출연했으며, 한국 천주교에서 처음으로 로시니(Rossini)의 미사곡이 연주되기도 했다.

2000



23. 남북천주교인 만남(중국 북경, 2000. 3. 27-29)

새로이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을 맡은 정광웅 신부와 주교회의 민화위 총본부장 한정관 신부,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인사들의 상견례를 목적으로 한 만남으로 옥수수 지원 일정 및 분배 지역 합의와 방북 일정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강지영(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서기장), 한정관 신부, 장재언(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창화 신부(서울대학교 사무처장), 정광웅 신부, 류규영이다.



25.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5주년 기념 워크숍(교구청 대회의실, 2000. 5. 13)

민족화해위원회는 설립 5주년을 맞아 위원장 강우일 주교를 중심으로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도·교육·나눔'에 대한 발제와 토론에는 270치를 봉헌한 '화해미사', 1,198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민족화해학교', 국수나누기, 옥수수·감자·비료·겨울옷 보내기 등의 '대북 지원활동'에 대한 실천 내용을 공유했다.



24. 민족화해를 위한 연해주 식량 축복식(러시아 연해주, 2000. 4. 13)

정광웅 신부의 주례로 연해주 식량 창고 앞에서 축복식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산 '벼'를 구입해 지원이 부족했던 함경도 지역의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에게 지정 지원을 추진했다.



26.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전국 심포지움(가톨릭대 성신교정 대강당, 2000. 6. 10)

‘한국교회와 민족화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최창무 대주교의 ‘민화위 활동의 역사적 의의와 미래적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정광웅 신부의 ‘대북지원활동의 현황과 과제’, 강인철 교수(한신대학교)의 ‘분단과 한국교회-반성적 고찰’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심포지움을 통해 민족교회 운동의 실현이 쉽지는 않겠지만 통일과 분단체제 해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27. 북한선교 희망 사제 모임(가톨릭대 성신교정 진리관 대강당, 2000. 7. 5)

북한선교를 희망하는 사제를 대상으로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부들의 모습이다. 시대의 징표를 읽고, 예언자적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교회의 역할을 생각하며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있어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목 방침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28. 물품 지원 현황 확인을 위한 북한 방문(2000. 7. 8-15)

평양시 육아원을 방문해 어린이 의약품을 전달하는 모습으로 왼쪽부터 윤감구, 한정관 신부(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정광웅 신부, 류규영이다.



29. 하이모 첫 여름 캠프(충남 금산 한국타이어 연수원, 2000. 8. 4-6)

하이모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봉사자가 게임 중 함께 뛰고 있는 모습이다. 민족화해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위해 마련한 첫 캠프로 2박 3일 동안 청소년 22명과 봉사자 38명, 총 60명이 함께했다.



30. 옥수수 2천 톤 구매 및 대북 인도적 지원(중국 장춘, 2000. 8. 17-19)

2001



31. 국수공장 협동농장 지원 논의를 위한 북한 방문(2001. 3. 20-24)

정광웅 신부가 북한 공장 관계자와 평안도 '청수냉면 작업반'을 둘러보며 크기와 가동률을 점검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방북단은 남포 직할시와 평안남도 평원군의 식량 배분 상황을 둘러보며 원화리 협동농장 지원과 남포 국수공장 건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32. 남포 국수공장 설립을 위한 지원 물자 축복식(인천항, 2001. 7. 11)

남포 국수공장 설립을 위해 4천 800만원 상당의 국수 기계 2대, 반죽기계 1대, 60와트 발전기 1대와 밀가루 100톤을 컨테이너 2대에 실어 북송하기 전 인천항에서 정광웅 신부의 주례로 축복식이 진행되었다. 선박회사 사정으로 10일에 예정되었던 선적일이 11일로 변경되어 현수막과 날짜가 다르다.



33. 남포 국수공장 축복식(평안남도 남포시, 2001. 7. 21)

정광웅 신부는 3월에 합의된 남포 국수공장 기계 설치와 국수 생산 가동 건의 실행을 위해 국수기계 엔지니어와 함께 북한을 방문하여, 국수 기계를 조립하고 첫 생산을 시작한 후 축복식을 진행했다.



34. 하이모 여름 캠프(경기도 대성리, 2001. 7. 27-29)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이선중 수녀(중앙), 오혜정 수녀(우)와 봉사자들이 ‘하나 되어 나누어요’라는 하이모 주제가 앞에서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하이모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과 대성리 산내들 캠프장에서 2박 3일간 요리대회, 추적 놀이, 물놀이, 캠프파이어 등의 레크리에이션을 하며 공동체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2002



35. 민족화해위원회 정기 총회(교구청 대회의실, 2002. 2. 23)

새로이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염수정 주교와 부위원장 최창화 신부, 본부장 정광웅 신부 등이 참여해 2001년 회계 및 사업보고, 성금 현황, 대북지원·원조,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의 업무보고, 2002년 사업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36. 북한 국수공장 현장 점검을 위한 북한 방문(2002. 4. 6-13)

신천 국수공장에서 축복식을 주례하고 있는 정광웅 신부와 방북단 일행 및 조선카톨릭교협회 관계자들이다. 민족화해위원회가 지원하는 평양 옥류 국수공장, 평안남도 남포 국수공장, 황해남도 신천 국수공장 등 북한 지역 내 3곳의 국수공장을 모두 방문해 국수 제작 과정과 건조 작업, 국수의 품질과 상태 등을 살펴보고, 시식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 방문의 시간을 가졌다.



37. 옥수수 지원 준비(하얼빈, 2002. 8. 2)

‘천주교민족화해위원회’가 ‘조선카톨릭교협회’에 보낸다는 글씨가 크게 표시된 자루에 옥수수를 가득 담아 하얼빈에서 북한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1997년의 옥수수 1만 톤 보내기 운동을 위시하여 조선카톨릭교협회를 통해 북한 전역에 옥수수를 보내온 민족화해위원회가 2002년 한해에 보낸 옥수수만도 3천 톤에 달했다.



38.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통일 음악회(명동대성당 성모동산, 2002. 8. 14)

평화상을 수상한 ‘엠제이’ 팀이 턱시도와 색동 한복을 입고 남북의 어린이로 분장해 ‘통일이 된다면 봐요!’를 부르고 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창작 성가’를 공모해 두 차례의 예선을 갖고 9개 팀을 선발해 통일 음악회를 마련했다. 본선 진출팀은 서울대교구 계성여고합창단, 춘천교구 CUM, 대구대교구 PAX, 대상을 받은 인천교구 소명여중합창단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행사로 진행됐다.



39. 법륜 스님, 막사이사이상 수상금 민족화해위원회에 기탁(세종문화회관, 2002. 9. 10)

정토회(淨土會)에서 마련한 법륜 스님의 수상 기념 행사에서 법륜 스님이 오혜정 수녀, 인세반 회장(유진벨재단)에게 수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실천공동체인 ‘정토회’를 이끄는 불교계의 대표적 사회 운동가 법륜 스님이 정치적 정파에 개의치 않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평화 및 국제이해 부문의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여 수상금 중 2천만 원을 민족화해위원회가 지원하는 황해남도 신천 국수공장에 지원했다.



40. 북한 신자 분단 이후 명동대성당 첫 공식 방문(명동대성당, 2003. 3. 2)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 민족대회’ 참가를 위해 조선카톨릭교협회 장재언 위원장과 강지영 부위원장, 평양 장충성당 신자 등 17명이 명동대성당을 방문해 민화위 위원장 김운회 주교의 주례로 주일미사를 봉헌했다. 장충성당 성가대는 평양에서 창설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초대원장으로 6·25 때 희생된 장정은 수녀가 역사(譯詞)한 ‘평화의 기도’를 특송으로 불러 화해의 의미를 더했다.



2004



41.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9주년 세미나(가톨릭회관, 2004. 3. 27)

민화위는 설립 9주년을 맞아 그간 민족화해 및 일치운동을 결산하고 겨레 복음화 의지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해주소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마련했다. 장궁선 신부의 기조 강연에 이어 김준영 신부(중국 북경 체류)와 정영화 교수(서경대학교)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중국에서 바라본 민족화해의 필요성’과 ‘북한교회의 현황과 그 전망’을 각각 다루었다.



42. 룡천역 열차 폭발 사고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대한적십자사 본사, 2004. 5. 4)

김운회 주교와 한민관 신부(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민족화해위원회)가 2004년 4월 22일 북한 서북지역 교통의 요지인 평안북도 룡천군 룡천역에서 발생한 가스 열차 폭발사고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미숫가루 15만 톤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으로 보냈다.



43. 농기계 지원을 약속한 북한 방문(2004. 5. 15-18)

평양 관후리 본당 출신인 황인국 문시놀이 만경대 누각에서 대동강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부터 황 문시놀, 장인숙 수녀(민화위 사무국), 장궁선 신부이다. 방북단은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방문하여,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와 농기계 100대를 지원하는 의향서를 교환했다.



44. 북녘에 보내는 사랑의 경운기(대동기계 광주공장, 2004. 7. 12)

민족화해위원회는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운기 지원에 합의한 100대 중 1차분 50대를 (주)대동기계 광주공장에서 컨테이너에 실어 인천항을 통해 남포항을 거쳐 원산지역 협동농장에 전달했다. 경운기에는 보내는 곳에 '전주교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 받는 곳에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가 새겨진 명패를 부착하였다.



46. 한마음 가족 캠프(의정부 한마음 수련장, 2004. 10. 30-31)

캠프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늘에 띄울 풍등에 각자의 소원을 적고 있다. 민족화해위원회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가족 캠프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팀워크 게임, 공동체 훈련, 인생 설계 등 다양한 놀이와 체험학습을 하며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45. 북한이탈주민 한가위 합동 차례(도라산 전망대, 2004. 9. 25)

북한 땅이 보이는 도라산 전망대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모여 차례상을 차리고 미사를 봉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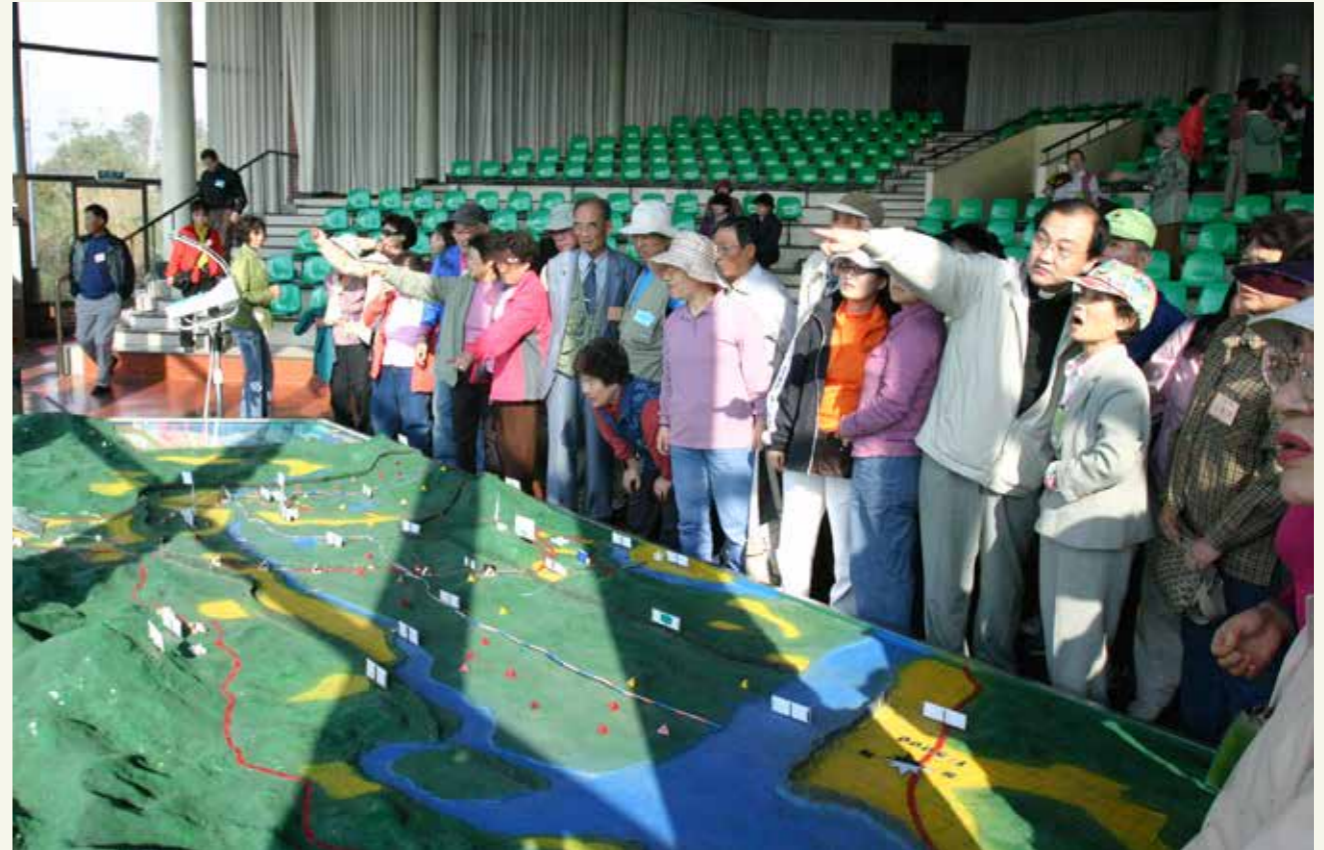
50. 사랑의 못자리 비닐 박막 축복식(고성 통일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 2005. 3. 25)

장금선 신부가 북녘 형제들에게 보낼 '사랑의 못자리 비닐 박막'을 실은 차량 앞에서 축복식을 주례하고 있다. 서울·광주·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한국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등에서 준비한 재원으로 마련된 못자리용 비닐 박막을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쪽으로 직접 지원했다. 이 물품들은 강원도 원산 및 덕원 일대 협동농장에 지정 기탁됐다.



51.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명동 우리은행 가톨릭회관 지점, 2005. 4. 1)

장금선 신부와 장인숙 수녀가 우리은행 가톨릭회관 지점장 등 은행 관계자들에게 북한 어린이 돕기 저금통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04년 개성공단에 지점을 개설해 북한에 진출한 첫 시중 은행이 된 것을 기념해 북녘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고자 북한 어린이 돕기 공동 캠페인에 동참했다.



52. 후원자와 함께한 분단체험 행사(도라산 전망대, 2005. 10. 19)

서부전선 최전방 도라산 전망대에서 장금선 신부가 북한 땅을 가리키며 후원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민화위는 150여 명의 후원회원을 초청해 민화위 설립 10주년 기념 분단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후원회원들은 제3땅굴과 도라산 전망대 등을 돌아보며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53. 평양 어린이 영양제 생산 시설 방문(2005. 11. 29-12. 3)

민족화해위원회는 북한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과 영양 개선을 위해 영양제 생산 설비 일체를 인천항을 통해 남포로 보냈다. 이에 기술진이 평양 현지를 방문해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연구원들에게 영양제 생산 기술과 생산 라인 가동 및 관리 기술을 전달했다.



54. 민족화해위원회 리모델링 사무실 축복식(가톨릭회관, 2005. 12. 29)

김운회 주교와 본부장 장금선 신부 등 민화위 관계자들과 함께 가톨릭회관 2층의 기존 사무실 확장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축복식 후, 2006년 초 공사에 들어갈 '참회와 속죄의 성당 및 민족화해센터'의 모형을 가리키며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06



55. 하이모 청년부 설날 행사(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006. 1. 28)



56. 참회와 속죄의 성당 및 민족화해센터 착공식(경기도 파주시, 2006. 4. 8)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의정부교구장 이한택 주교와 민화위 위원장 최창화 몬시뇰, 평양교구 출신 사제 4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회와 속죄의 성당 착공식을 진행하고 있다. 참회와 속죄의 성당 건립은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서임 직후 전쟁으로 형제를 죽인 우리 스스로 회개하자는 취지로 통일동산에 회개와 보속의 상징물을 짓겠다고 한데서 출발했다. 서울대교구는 의정부교구와 완공 이후 운영을 이관한다는 공동 사목 합의서를 교환했다.



57. 후원 회원 첫 북한 방문(2006. 4. 26-29)

평양이 수도권 모원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회원 중 평양 출신 수녀들이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며 망향의 한을 달라고 있다. 민화위 위원장 최창화 몬시뇰과 본부장 장금선 신부를 포함하여 이산가족후원회원과 가족, 평양과 평북 정주시 등이 고향인 이산가족,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회원 61명으로 구성된 방북으로 김포공항에서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장충성당, 남포 국수공장, 어린이영양제 생산공장,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 모향산 등을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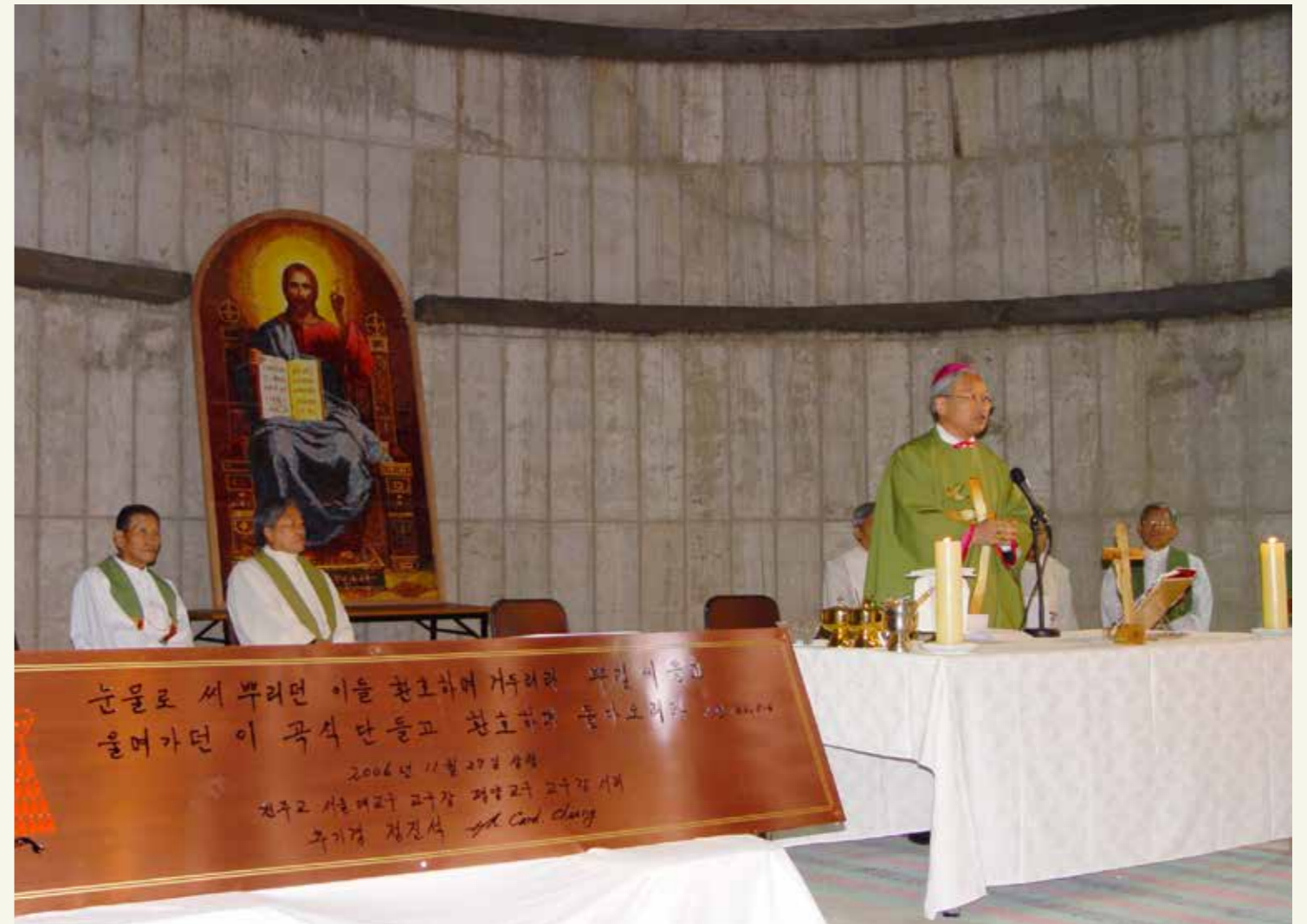
58. 어린이 영양제 원료 지원 축복식(2006. 5. 26)

어린이 영양제 생산 공장에 원료 지원을 위하여 컨테이너 작업을 마치고 장금선 신부가 축복식을 주례하고 있다. 영양제 원료뿐만 아니라 생산 공장의 건조기 전압전동기 한 상자와 장충성당에서 사용할 음향기기, 가톨릭 대사전, 제의방에서 사용할 나무판을 실었다.



59. 밀가루, 어린이 영양제 생산 원료 지원 현황 파악을 위한 복한 방문(2006. 7. 21-25)

장금선 신부가 신천 국수공장을 찾아 국수공장 관계자들과 함께 기계 가동을 확인하고 있다. 장금선 신부를 단장으로 한 5명의 방북단은 평양의 어린이영양제 생산공장과 남포 국수공장, 신천 국수공장을 방문하여 지원된 원료와 공장의 정상 가동을 모니터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류를 검토하며 취약계층에게 밀가루가 분배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60. 참회와 속죄의 성당 상량식(경기도 파주시, 2006. 11. 27)

참회와 속죄의 성당 건립 현장에서 성당 대들보에 부착할 상량판을 축복하는 미사가 봉헌됐다. 상량문에는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정진석 추기경의 친필로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이, 곡식 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시편 126,5-6).”는 성경 구절이 새겨졌다. 제대에는 북측 만수대창작사에서 제작한 유리 모자이크 벽화 ‘구세주’가 일부 공개됐다. 김운회 주교는 강론에서 “재를 뿌리고 엎드려 주님께 용서를 청하는 참회와 속죄의 성당을 통해 남북 간 갈등이 치유되고 온 겨레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화해의 기쁨을 얻는 성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2007



61. 성탄절 행사를 겸한 평양 방문(2006. 12. 23-26)

구유와 성탄 트리가 장식된 제대 위에서 이은형 신부의 주례로, 장금선, 장홍선 신부가 장총성당 신자들과 함께 첫 성탄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민화위 본부장 장금선 신부 외 5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은 같은 달에 지원한 밀가루와 어린이영양제 생산 원료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2007년 지원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62. 민족화해센터 착공식(경기도 파주시, 2007. 3. 21)

민족화해센터의 조감도를 살펴보며 설명을 듣고 있는 (왼쪽부터) 평양교구장 대리 황안국 몬시뇰, 메리놀외방전교회 한국지부장 함제도 신부, 메리놀외방전교회 총장 존 C. 시벌란 신부, 민화위 위원장 최창화 몬시뇰이다. 민족화해센터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준비하는 다목적 시설로 평양 외곽 서포지역에 위치했던 메리놀외방전교회 교육관을 원형으로 설계됐다. 착공식을 주례한 최창화 몬시뇰은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분단으로 인한 깊은 고통을 돌아보고 먼저 속죄하고 참회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물론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분열과 갈등을 해소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민족화해센터를 건립하게 됐다.”며 신자들의 기도를 요청했다.



63. 민족화해학교 재개(가톨릭회관, 2007. 4. 13-5. 18)

민족화해위원회와 평신도사도직협회가 6주 과정으로 공동 개설한 '민족화해학교'는 2000년에 중단한 지 6년 만에 재개됐다. 거래 화해와 일치, 민족 동질성 회복 그리고 통일사목을 위한 평신도 지도자 양성에 중점을 뒀다.



64. 사랑의 왕진 가방 축복식(성남시 신원물류보관창고, 2007. 8. 17)

장강선 신부가 조선탈목교협회를 통해 황해도 신천군 인민병원 의료진에 전해질 왕진 가방과 의료기기를 축복하고 있다. 왕진 가방에는 혈압계와 청진기, 수은 체온계, 핀셋, 침 세트, 부황 세트, 진료일지 등 양·한방 의료품목이 포함되어 북한의 의료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했다.



65. 하이모 여름 캠프(용인 양지청소년수련원, 2007. 8. 15-17)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를 주제로 하이모에서 마련한 여름 캠프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강령탈춤을 배우고 있다. 캠프에서는 우리 탈 만들기를 비롯해 강령탈춤 배우기, 민속 장단 배우기 등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지닐 수 있도록 기획됐다.



66. 북한 수해 지원 구호 물품 축복식(인천항, 2007. 9. 11)

최창화 몬시뇰이 민족화해위원회 후원회원과 평양교구 신우회 회원이 함께한 가운데 북녘 수재민들에게 지원할 미숫가루와 공기름을 축복하고 있다. 구호 물품은 8월 26일 서울대교구 전 본당에서 실시한 2차 헌금과 민화위에 들어온 성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미숫가루 20톤, 공기름 4,717통 등 컨테이너 7대 분량이다.



67. 신천 콩기름 공장, 인민병원 현장 점검을 위한 북한 방문(2007. 10. 27-30)

민족화해위원회가 3개월에 걸쳐 신천 콩기름 공장 건축 자재와 기계 설비, 콩 등을 지원해 공장을 완공했다. 이에 따라 장금선 신부를 단장으로 국내 기술진과 함께 신천 현장을 점검하고 콩기름 착유기와 분쇄기 등 설비 설치를 마무리함으로써 공장 가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신천군 인민병원에 지원한 왕진 가방의 활용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68. 민족화해학교 2차 교육(가톨릭회관, 2007. 11. 2-12. 7)

6주간에 걸친 민족화해학교 2차 교육을 마무리하고 최창화 목사님 주례로 파견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민족 화해위원회와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민족화해학교는 1차 35명, 2차 55명의 수료생을 배출 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봉사할 평신도 지도자 양성에 불을 지폈다.

2008



69. 민족화해학교 심화 교육(2008. 5. 26-6. 30)

2007년에 재개된 민족화해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화 교육에서 조광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70. 하이모 여름 캠프(강원대 삼척캠퍼스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2008. 8. 15-17)
보트를 타고 조별 경기를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하이모 청소년과 봉사자들의 모습이다.

2009



72. 하이모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명동대성당 문화관, 2009. 4. 17)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평화를 이루는 통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 하이모가 10주년을 맞았다. 미사 주례를 맡은 김운회 주교는 축사를 통해 “새터민들에게 겨레의 따뜻한 품을 전하고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하이모가 앞으로도 그들의 위로가 되고 등대가 되며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71. 새터민 지원센터 ‘양천 평화의 집’ 축복식(서울 양천구, 2008. 11. 21)
(왼쪽부터) 조규만 주교(서서울지역 교구장 대리), 김운회 주교(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장금선 신부, 이강서 신부(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헌판식과 축복식을 가졌다. ‘양천 평화의 집’은 민족화해위원회와 빈민사목위원회가 연대해 새터민들의 내적 치유와 안정된 정착을 돕는 지원센터이다.



73.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후원 회원 모집(신천동 성당, 2009. 5. 9-10)



74. 북한이탈주민 농촌 이주 및 생산협동조합 창업 교육(가톨릭회관, 2009. 9. 12)

민족화해위원회는 가톨릭농민회와 연계해 귀농에 관심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농촌 이주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전남 구례로 귀농해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에서 활동하는 김영길 상임이사의 강의를 듣고 있다.



75. 어린이 분유 지원(함경북도, 2009. 12. 25)

민족화해위원회가 중국 단둥 삼봉무역유한공사를 통해 아동 전지분유 16톤을 지원하여 함경북도 인민위원회가 함경북도 청진 육아원에 배분해 아이들이 분유를 마시고 있다.



76. 북한이탈주민 간병인 교육 사업(교구청 별관, 2010. 10. 1)

민족화해위원회가 가톨릭 간병인회와 연계하여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간병인 교육사업'은 여성 북한 이탈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이다. 이들에게 간병인의 역할과 자세, 간병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77. 사랑의 밀가루 지원(중국 단둥, 2010. 11. 4-6)

포대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보냈다는 글씨가 명기된 밀가루를 북측 화물열차에 옮겨 싣고 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해 서울대교구 각 본당에서 실시한 2차 헌금으로 밀가루 300톤을 마련해 중국 단둥을 거쳐 신의주로 실어 보냈다.



78. 천주교 사랑 나눔 대북 긴급 식량 지원 밀가루 축복식(개성 봉동역 하치장, 2011. 10. 12)

민화위 본부장 정세덕 신부가 북한 형제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밀가루에 성수를 뿌리며 축복하고 있다. 민화위는 이날 25톤 트럭 8대에 밀가루 200톤을 실어 개성 봉동역까지 보냈다.



79. 각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사제들의 공동 북한 방문(2011. 11. 29-12. 2)

이은형 신부(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장)가 황해북도 육아원을 방문해 아이를 안고 있다. 그동안 교회 협상 창구가 각 교구 민화위나 수도회 등으로 다원화돼 혼선을 빚었던 것을 전국 민화위 담당 사제들과 관계자들이 공동 방북하여 조선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측 식량 지원을 위한 교회 협의 창구를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합의했다.

* 아래 사진 왼쪽부터 조영민(조선기독교교회협의회 부위원장), 서중엽 신부(수원 민화위), 정세덕 신부, 최창화 목사, 이은형 신부(의정부 민화위), 홍상표 신부(서울대학병원), 이효언 신부(갈현동본당)이다.





80. 2012 불어라 세계 평화의 바람(2012. 7. 28-8. 3)

평화의 바람 순례단이 분단의 비극 현장을 순례하고, 마음에 담은 평화의 꿈을 쓴 리본을 철책에 매달며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바쳤다. 민족화해위원회는 갈수록 경색되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불어라 평화의 바람'이라는 주제의 비무장지대(DMZ) 평화순례를 기획했다. 국내외 청소년 94명으로 구성된 순례단은 나라와 인종의 장벽을 넘어 평화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배우고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84. 민족화해위원회 상임위원회의(교구청 별관, 2014. 3. 21)

민족화해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사목 인력 양성, 북한과의 종교교류협력 확대, 전문 연구 기능 강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운동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았으며, 교회 내 단체 간 합의된 북한 관련 정책 수립, 북한 신자 관리 강화방안 마련, 북한이탈주민 모임 및 하나원 방문 등이 논의됐다.



85. 하나원 방문(안성, 2014. 4. 27)

민족화해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훈련기관인 '하나원' 교육생 가운데 천주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남한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며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교리수업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86. 이산가족을 위한 특별미사(명동대성당, 2014. 5. 20)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추기경과 함께하는 이산가족을 위한 특별미사가 봉헌됐다.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며 '화해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기원한 이 미사는 평양교구 소속 사제단과 평양교구 신우회 회원들이 함께했다. 염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더는 이산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방치해서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70년 가까이 왕래는 물론 서신조차 교환하지 못하고 살아온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회를 촉구했다.



87. 서울대교구장 개성 첫 사목 방문(개성공단, 2014. 5. 21)

평양교구장 서리를 맡고 있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평양교구장 서리 대리 황인국 몬시뇰,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 정세덕 신부 등이 군사분계선에서 이산가족과 남북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서울대교구장이 북녘 땅을 밟는 것은 처음으로 염 추기경은 천주교 신자들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로사리오회 회원들과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오늘은 부부의 날인데, 사이좋은 부부처럼 남북이 화해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88. 민족화해센터 봉헌식(경기도 파주시, 2014. 7. 5)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기도 공간이 10년 만에 완성되어 봉헌식을 가졌다.



89.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한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가시관 증정식(명동대성당, 2014. 8. 17)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앞서 평양 교구장 서리 염수정 추기경이 휴전선 철조망으로 만든 가시관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선물했다. 이 가시관은 민화위와 서울시립대 안병철 교수가 제작한 것으로 가시관에 쓰인 철조망은 1953년 휴전선에 설치됐다가 교체를 위해 철거돼 강원 DMZ 박물관에 보관해 왔던 것이다.



90. 평화를 찾아 떠나는 DMZ 기차여행(철원 백마고지 일대, 2014. 10. 28)
민화위 후원회원들이 6.25 전쟁 때 큰 피해를 입어 포탄과 총탄 자국이 촘촘하게 나 있는 철원 노동당사 앞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미사 후 민간인 통제구역을 지나 철원에서 끊어진 '금강산 전기 철도 교량'을 걸으며 분단의 아픔을 실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91. 평화나눔학교 입문과정(교구청, 2014. 11. 6-12. 11)

평화나눔연구소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중 여러 차례 강조한 평화의 메시지를 실천하기 위한 '평화나눔학교'를 개설했다. 입문 과정은 유경춘 주교가 '한반도 평화, 오늘의 일이며 나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주제로 첫 강의를 했다. 6주간 입문 과정을 시작으로 심화와 체험 과정을 거쳐 '평화'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현실, 북한주민 이해 등에 관한 강의로 진행됐다.



92.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1,000차 봉헌(명동대성당, 2015. 1. 6)

1,000차를 맞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는 염수정 추기경의 주례로 봉헌되었으며 강론은 초대 민족 화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남북 천주교회 교류협력의 물꼬를 튼 최창무 대주교가 맡았다. 최 대주교는 강론에서 "우리는 북한주민들과 피를 나눴다는 '혈연', 하느님의 복음을 함께 들었다는 '학연', 같은 한반도에서 태어났다는 '지연'을 기억하고, 이곳 명동대성당이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자 웅달샘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93. 민족화해위원회 산하 평화나눔연구소 개소식 및 평화토크(명동대성당 패밀리아 채플, 2015. 3. 24)

염수정 추기경과 최창무 대주교, 유경춘 주교가 참여하여 평화나눔연구소 헌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평화와 나눔에 대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 그리고 북한 복음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실천적 활동을 목적으로 평화나눔연구소를 개소했다. 개소 기념으로 마련된 평화 토크에는 최창무 대주교(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초대위원장)와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담임), 임강택 박사(평화나눔연구소장)가 참석해 '분단 70년, 한반도 평화와 종교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94. 평화나눔학교 2기 교육(교구청 별관, 2015. 5. 21-7. 9)

윤여상 소장(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 수강생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평화나눔학교 2기는 수강생을 15명 내외의 소규모로 제한해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수강생 간의 활발한 토론과 교류를 통해 분단의 아픔 속에 사는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95. 광복·분단 70년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한 지원 협약식(교구청 대회의실, 2015. 6. 22)

염수정 추기경과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광복·분단 70년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한 지원 협약식'을 갖고 있다. 협약식을 통해 우리은행은 서울대교구에 8억 1,500만원을 기부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이 기부금을 조·중 접경지역 탐방과 평화나눔사업에 사용할 계획을 밝혔다.



96. 통일부 프란치스코회 창립 1주년 미사(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2015. 7. 24)

통일부에서 근무하는 가톨릭 신자들이 이루어진 '프란치스코회'는 창립 1주년을 맞아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창립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프란치스코회의 지도신부는 민화위 정세덕 신부가 담당했다.



98. '내 마음의 복녃 본당 갖기' 시작 미사 및 발대식(명동대성당 교스트홀, 2015. 11. 24)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추기경, 민화위 위원장 정세덕 신부, 덕원자치수도원구 자치구장 서리 박현동 아바스가 복녃 교회 모형을 가리키고 있다. 민화위는 북한 땅의 교회와 신자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기 위해 복녃의 57개 본당 가운데 하나를 '내 마음의 본당'으로 정하고 그곳을 위해 기도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정세덕 신부는 "본당은 교회 조직과 물리적 건물을 뛰어 넘어 '삶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다. 눈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신자들 한 명 한 명이 복녃 본당의 마음의 신자가 되어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한다는 것이다."라며 복녃 교회와 신자들을 기억하는 기도운동에 동참할 것을 부탁했다.



97. 광복 70주년 북·중 접경 지역 역사 탐방(2015. 8. 16-21)

민화위 위원장 정세덕 신부와 신자들이 압록강 단교 끝자락에서 신의주 땅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있다. '함께하는 우리, 함께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모인 북·중 접경지역 탐방단이 중국 연길에서 대련까지 1,200km의 여정을 함께했다. 정 신부는 "북한에 사는 어렵고 소외된 이들, 그곳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탐방처럼 사람들이 직접 스스로 느끼고 알고 배울 기회를 마련하는 게 평화를 향하는 걸음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99. 개성공단 로사리오회 '내 마음의 복녃 본당 갖기' 운동 동참(대건의 집, 2015. 12. 6)
개성공단 가톨릭공동체 '로사리오회' 회원과 가족들이 '내 마음의 복녃 본당 갖기' 운동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100. 제1회 평화나눔포럼(교구청 신관, 2015. 12. 11)
평화나눔연구소 주관으로 '북한의 종교 현실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의 제1회 평화나눔포럼이 개최됐다.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첫 번째 세션에서 윤여상 소장(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 '북한 종교박해 백서'를 주제로 "북한 내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종교박해가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발표하여 북한의 종교 생활 현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101. 2015년 북한이탈주민 성탄제(명동대성당 프란치스코홀, 2015. 12. 19)
염수정 추기경을 중심으로 왼쪽부터 북한 이탈 청소년 사목 정성훈 신부(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정세덕 신부, 17년간 외국에서 고려인 사목을 한 김동기 신부(한국외방선교회), 안원진 신부(교구장 비서)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성탄 미사를 공동 집전했다. 미사를 주례한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추기경은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내 옆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터놓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102. 토마스회 발대 미사(고스트홀 소성당, 2016. 2. 17)

평화나눔연구소는 영성에 기반해 북한과 통일, 평화 등을 연구하는 청년 모임인 '토마스회'를 발족시켰다. 토마스회는 '동양평화론'을 주창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을 기려 그의 세례명인 '토마스'를 모임명으로 정했다. 국내외 대학원에서 통일학, 북한학, 국제학 등 석·박사 전공 과정에 있는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매달 북한·통일·평화의 주제를 영성적 차원에서 다루는 연구모임과 학술연구논문 발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다.



103. 평화나눔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교구청 신관, 2016. 3. 31)

평화나눔연구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마련한 세미나는 한반도에 절실한 평화를 교회의 관점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교회 안에서 평화를 묻다'라는 주제의 1세션 발표자 박정우 신부(가톨릭대학교)는 "그리스도인은 정의와 공정에 기초한 사회 질서 확립을 통해 '정의의 열매'로서 평화를 이루고, 비폭력과 용서, 화해, 일치 등을 통해 '사랑의 열매'로서의 평화를 이루며, 군비 경쟁 중단과 북한 돕기를 실천하고, 평화를 위한 기도를 통해 평화를 추구할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104. 화천 하나원 교육생 문화체험(서울 일대, 2016. 5. 26)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훈련기관인 화천 하나원에서 3개월 과정을 마친 교육생 가운데 천주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과 함께 문화체험 행사를 가졌다.



105. 한반도 평화기원 성모의 밤(명동대성당 성모동산, 2016. 5. 31)

내 마음의 복讎 분당 갖기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한반도 평화기원 성모의 밤 행사에 400여 명의 이산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참석해 70년 넘게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 한반도'를 만들었다.



106. '내 마음의 복讎 분당 갖기' 사진 전시회(1898 광장, 2016. 6. 10-7. 3)

민족화해위원회와 '내 마음의 복讎 분당 갖기' 추진위원회는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를 주제로 6.25 전쟁 이전 북한 지역의 신앙생활과 교회를 선보이는 사진 전시를 마련했다.



107. DMZ 국제청년평화순례(파주 DMZ 일대, 2016. 8. 13-19)

평화순례에 참여한 청년들이 세계 분쟁지역에서 모은 탄피를 녹여 만든 세계 평화의 종을 함께 울리고 있다. DMZ 국제 청년 평화순례 발대식을 마친 국내외 청년들은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에서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을 거쳐 파주 임진각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참상을 되새기며 평화를 노래하는 여정을 함께 했다.



108. 2016 한반도평화나눔포럼(가톨릭대 성신교정, 2016. 8. 19-22)

평화나눔연구소는 민족과 종교분쟁으로 인한 참상을 경험한 중동과 동유럽 발칸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평화의 길, 한반도의 길'을 주제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해법과 교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일 열린 포럼에서 '국제적 평화 달성을 위한 가톨릭의 역할'을 주제로 뱀싸라 부트로스 라이 추기경(중동 및 안티오키아 마로나이트교회), 빙코 풀리치 추기경(사라예보 대교구), 스타니스라브 호체바르 대주교(베오그라드 대교구), 프란요 코마리차 주교(반야 루카 교구) 등 옛 분쟁지역 고위 성직자들이 함께해 평화의 복음을 전했다.

109. 2016 한반도평화나눔포럼 특별 대담(명동대성당 패밀리아 채플, 2016. 8. 22)

'함께 평화를 꿈꾸다'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중동, 발칸 주교단과 성모 찬가 '살베 레지나(Salve Regina)'를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합제도 신부, 안톤 암닉 주교(슬로베니아 루블랴나 대교구), 뱀싸라 부트로스 라이 추기경, 염수정 추기경, 프란요 코마리차 주교이다.





110. 통일사목 인력양성 자원프로그램 '평화로 가는 길'(2016. 10. 16-21)

가톨릭대 성신교정 4학년 신학생들이 6.25 전쟁 당시 끊긴 압록강 단교 끝자락에서 통일사목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학생들은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 일대를 돌며 김대건, 최양업 신부의 선교 발자취를 돌아보고 조·중 접경지역을 탐방하며 한반도 평화를 성찰하고 통일사목의 선교 비전을 공유했다.



111. 2016 평화나눔포럼(교구청 신관, 2016. 12. 9)

평화나눔연구소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변화'라는 주제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짓누르는 안보위협과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럼은 세 세션으로 나눠 평화나눔연구소의 연구 과제 발표, 전문가 패널, 평화와 통일학을 전공하는 토마스회 회원들의 발표로 진행됐다.

Povelja

U prigodi 90. godišnjice
osnutka biskupije P'yong-gang (Sj. Korzja),
u sestrinskim biskupijama
Banja Luka (Bifl) i P'yong-gang (Sj. Korzja)
- sjjećajući se svih onih, koji su iz vjernosti Kristu Gospodinu
dali svoj život -
obezbavaju obostrano,
u čvrstom prijateljstvu i duhovnoj pomoći,
moliti u svojim zajednicama, za majčinsko posrzedovanje
Blažene Djevice i Bogorodice Marije.

중서

평양교구(북한) 설립 90주년을 맞이하여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양쪽 교구의 모든 신자들을 기억하며,
평양교구(북한)와 반야루카(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교구는 자매교구로서
특별한 우정과 영적 도움,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복되신 동정 성모마리아의 전구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로 약속하며,

Sveta Marija Bogorodica, 01.01.2017
2017년 1월 1일, 화느님의 어머니 대축일에

<p>+ Franjo Komarica, biskup banjolučki</p> <p>+ Franjo Komarica 프란요 코마리차 반야루카 교구 교구장</p>	<p>+ Andrew Card. Yeom Soe-jung nadbiskup Seula apostolski upravitelj P'yong-yang</p> <p>+ Andrew Card. Yeom Soe-jung 추기경 염수정 안드레아 평양교구 교구장</p> <p>+ 염수정</p>
---	--

112. 평양교구와 반야 루카(Banja Luka) 교구 자매 결연(성 보나벤투라 주교좌성당, 2017. 1. 7)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추기경과 반야 루카 교구장 프란요 코마리차 주교가 평화와 통일, 일치를 염원하는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 함께 기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매결연을 맺었다. 반야 루카 교구는 1992년부터 4년간 계속된 내전 기간에 사제와 수도자가 희생됐고, 성당이 대부분 파괴되는 등의 박해를 받았다. 2016년 한반도평화나눔포럼에 참가했던 반야 루카 교구장은 평양교구에 대해 듣고 내전과 분단으로 고통받는 교회끼리 기도로 연대하자는 제안을 해와 자매결연이 성사됐다.





113. 평화나눔연구소-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강원도 속초, 2017. 2. 11-12)

평화나눔연구소와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는 '세계화 시대의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평화 담론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인권 문제를 돌아봤다. 1세션에서는 '평화, 통일, 안보 담론의 재해석 : 당위와 현실 사이'를 살폈고, 2세션에서는 '정체성과 인권의 정치'에 대해 조명했다. 발표자로 참여한 평화나눔연구소 토마스회 이시권은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은 하나의 개념이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평화의 중요성과 그 개념의 확장을 통해 그 개념이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며 "개념적으로는 구분되더라도 평화와 통일은 '다르지 않은 하나의 여정'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15. 유니타스 성가대 창단(명동대성당, 2017. 3. 7)

노래로 통일과 화해를 지향하는 '유니타스 성가대'가 창단했다. 라틴어로 일치를 뜻하는 유니타스(UNITAS)는 민화위 소속으로 매주 화요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되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에서 성가를 담당한다.



114. 북한이탈주민 젊은이 피정(씨든 피정의 집, 2017. 2. 11-12)



116. 평양교구 90주년 기념미사(명동대성당, 2017. 3. 18)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추기경의 주례로 거행된 평양교구 설정 90주년 미사에 장금선 신부가 제작한 이콘 '평양교구 하느님의 종 24위'가 제대 앞에 세워져 있다. 평양교구 설정을 전후해 평안도 지역 가톨릭교회와 함께한 파리외방전교회, 메리놀외방전교회, 메리놀수녀회,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를 초청해 평양교구 설정 90주년을 맞아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킨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를 기억하고, 지금도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을 복nick 신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117. 평화나눔연구소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교구청 신관, 2017. 3. 30)

평화나눔연구소는 '가톨릭의 평화실천과 한반도'를 주제로 평화실천을 위한 새로운 모색과 함께 전환기를 맞는 대북 정책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은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과 국제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평화실천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두 번째 세션은 '전환기 대북정책의 성찰과 향후 과제'에 대해 원탁토론을 진행했다.



118. 파티마 성모님께 봉헌하는 한반도 평화기원 성모의 밤(명동대성당 성모동산, 2017. 5. 8)

염수정 추기경과 정세덕 신부, 김훈일 신부가 묵주와 촛불을 높이 들어 성모님께 기도하고 있다.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을 맞아 남과 북이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고 민족의 번영을 앞당기도록 성모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119. 북한이탈주민 대상 좋은 부모 학교 개설(교구청 별관, 2017. 7. 23)

황 엘리사 수녀가 북한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 'ABC 첫 걸음'을 진행하고 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서울시 거주 북한민 자녀 중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좋은 부모 학교'를 마련해 남북한 교육 차이, 성격유형에 따른 가족 이해하기,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 등을 주제로 이론강의, 영화관람, 여름캠프, 나들이 등 야외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120.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기차 타고 떠나는 1박 2일' (강원도 정동진 일대, 2017. 5. 20-21)



121.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명동대성당, 2017. 6. 25)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을 기념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축복한 성모상 중 아시아를 순회하는 성모상을 앞세우고 염수정 추기경과 사제단이 성당으로 입장하고 있다. 염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100년 전 발현하신 파티마 성모께 분단된 한반도를 의탁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호소하며, 파티마 성모님께 복녘 교회와 우리나라를 봉헌했다.



122. 2017 DMZ 평화의 바람 국제청년평화순례(2017. 8. 14-20)

평화순례 참가자들이 민화위가 개발한 '내 마음의 복녘 본당 갖기' 기도운동 애플리케이션의 첫 화면을 컨스마트폰을 들어 보여주며 기도운동을 확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순례에는 현재 내전 중이거나 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18개국 분쟁지역에서 온 해외 청년과 국내 청년들이 참가해 고성, 양구, 철원, 파주 4대 권역별로 평화-생태-역사를 주제로 이루어졌다.



123. 평화나눔연구소-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예수의 성모 여자 관상 수도회, 2017. 8. 26)

‘불확실성 시대의 공생의 정치학 :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공동학술회의의 첫 번째 세션은 ‘국가와 NGO의 대 아프리카 원조’, 두 번째 세션은 ‘체제전환과 정치사회 변동’, 세 번째 세션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슈와 과제’로 구성되었다. 총 6명의 발표자, 7명의 토론자를 포함한 여러 연구자가 학술회의에 참여했다.



124. 2017 한반도평화나눔포럼(가톨릭대 성신교정, 2017. 11. 3-6)

‘정의와 평화, 한반도의 길’을 주제로 열린 포럼은 분쟁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몸소 느낀 남미 국가의 성직자들이 참여해 내전과 군부정권의 억압 통치, 교회 탄압 등에 맞서 신앙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 온 ‘평화의 경험’을 나누고 용서와 화해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한홍순(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카를로스 가르피야스 메를로스 대주교(멕시코 모렐리아 대교구), 오질루 베드루 쉼레 추기경(브라질 상파울루 대교구), 그레고리오 로사 차베스 추기경(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대교구)이다.



125. 판문점을 방문한 한반도 평화나눔포럼 참가자들(2017. 11. 3)

염수정 추기경과 차베스 추기경 등이 포럼을 갖기에 앞서 판문점을 방문해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체험했다.



126. 2017년 한반도평화나눔포럼 특별 대담(2017. 11. 6, 패밀리아 체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이 오질루 베드루 쉼레 추기경과 대담하며 군부 집권 시절의 생생한 체험에 대해 들었다.



127. 평화나눔연구소-한양대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강원도 설악, 2018. 2. 24-25)

평화나눔연구소와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는 '국제정치와 평화 연구: 구성, 담론, 그리고 실천'을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열었다. 첫 번째 세션은 '국제 정치의 이론과 현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인식과 담론의 구성'을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128. 평화나눔연구소 창립 3주년 세미나(교구청, 2018. 3. 22)

평화나눔연구소가 창립 3주년을 기념해 '불확실성의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의 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은 '전환기 미·중 관계와 한반도 평화', 두 번째 세션은 '평창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자리였다.



129. 남북 정상회담 성공기원을 위한 미사(명동대성당, 2018. 4. 24)

제1163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는 남북 정상회담 성공기원을 위한 미사로 봉헌되었다.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추기경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하여 "남북 정상회담 당국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락을 초월해 오로지 민족의 공동선을 촉진하는 일을 함께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지혜와 분별력을 발휘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땅에서 핵무기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세계 평화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모든 분을 하느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130. 한반도 평화기원 성모의 밤(명동대성당 성모동산, 2018. 5. 31)

신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묵주기도를 바친 뒤 초를 봉헌하여 한반도 형상을 만들었다. 성모의 밤 예식에서 전 세계와 한반도 평화, 북한 북음화, 북녘 형제들,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분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묵주기도 5단을 바친 뒤 촛불로 한반도 형상을 만들어 성모께 봉헌하고 전구를 청했다.



131. 2018 한반도 평화기원 대기도회(혜화동 동성고등학교 스테파노홀, 2018. 6. 23)

민화위, 성령쇄신봉사회, 레지오 마리에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가 공동으로 주관한 한반도 평화기원 대기도회는 '하나됨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렸다. 미사의 주례는 염수정 추기경이 맡았으며,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가 공동 집전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교황님께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영원한 평화와 진정한 화해가 있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고 말했다.



132. 2018 한반도평화나눔포럼(가톨릭대 성신교정, 2018. 8. 31-9. 5)

‘인간의 존엄과 평화 한반도의 길’을 주제로 진행된 2018 한반도평화나눔포럼에서 신정환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평화나눔연구소)의 사회로 찰스 마웅 보 추기경(미얀마 양곤 대교구), 세바스찬 프란시스 쇼 대주교(파키스탄 라호르 대교구)가 발표했다. 세바스찬 대주교는 “2001년 9·11테러 이후 그리스도교도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동맹으로 간주해 교회와 그 기관이 공격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테러를 당했다.”면서 주일 미사나 부활절 행사 중 자살 폭탄 테러가 벌어지는 등 종교적 혐오 범죄를 상세히 설명하며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지 않는 신앙 실천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종교 간 대화만이 평화의 진전을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133. 2018 한반도평화나눔포럼 특별 대담(2018. 9. 3, 패밀리아 채플)

특별 대담은 ‘함께 평화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첫째 마당은 신정환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평화나눔연구소) 사회로 오스왈드 그라시아스 추기경(인도 뭄바이 대교구)이 대담을 나눴다.



134. 주교단의 판문점 방문(2018. 9. 4)

주교단이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던 회담장 내부를 둘러보았다. 왼쪽부터 정세덕 신부, 찰스 마웅 보 추기경, 오스왈드 그라시아스 추기경, 세바스찬 프란시스 쇼 대주교, 한홍순(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평화나눔연구소 자문위원)이다.



135. 평화나눔연구소 학술심포지엄(교구청, 2018. 10. 12)

평화나눔연구소는 '평화를 위해 일한 가톨릭 선구자 장면(張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기조강연에 나선 한홍순은 "장면의 정치 활동은 사랑과 정의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선을 이뤄주려는 봉사의 장이었다'면서 "많은 이가 그를 귀감으로 삼아 우리 겨레의 평화와 선을 위해 일하도록 그가 제단의 영예에 들어 올려지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



136. 평화나눔연구소-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동계 공동학술회의(강원도 양양, 2019. 2. 23)

평화나눔연구소는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와 '갈등과 화해의 정치: 평화와 공생의 길'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적 삶에 있어서 인식과 재발견'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공동체의 평화와 인권'을 다루었다.



137.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특별미사(명동대성당, 2019. 3. 5)

우니타스 엔젤스 어린이 합창단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특별미사 중 공연을 하고 있다. 1201차를 맞은 화해 미사는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추모하며 봉헌됐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 많은 이들이 기도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김 추기경의 뜻에 따라 이날 미사에는 주한 필리핀 대사 내외를 비롯해 주한 브라질, 엘살바도르, 폴란드 대사와 국내 거주 외국인 등 세계 각국 내빈이 초대됐다. 우니타스 엔젤스는 만 7-11세의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합창을 통해 가정과 사회, 교회 안에서 소통하고 일치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138. 평화나눔연구소 창립 4주년 기념 세미나(교구청, 2019. 3. 8)

평화나눔연구소는 선종 10주년이 되는 김수환 추기경의 화해 가르침을 기억하며 '김수환 추기경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수환 추기경의 평화나눔과 실천에 대해 신정환 교수(한국의국어대학교/평화나눔연구소)는 "김 추기경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을 때 얻어지는 것으로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며 "자기 몸을 나누는 형제애를 기반으로 한 김수환 추기경의 평화 개념은 통일론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9. 우니타스 몽골 해외봉사(몽골 울란바토르, 2019. 7. 22-29)

북한이탈주민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이 몽골 아이들과 함께 미니올림픽에서 대형 주사위 던지기를 하고 있다. 이들은 몽골 아이들과 함께 벽화제작, 오키리나, 비트박스 등의 예체능 봉사를 하며 편견을 허물고 하나되는 장을 만들었다.





140. 2019 한반도평화나눔포럼(가톨릭대 성신교정, 2019. 5. 17-20)

2019 한반도평화나눔포럼은 동유럽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해 '평화의 문화, 한반도의 길'을 주제로 열렸다. 첫 번째 세션 '화해와 치유' 주제는 페테르 에르되 추기경(헝가리 에스테르곰-부다페스트대교구장)이 국가 체제 변화 이후 헝가리 가톨릭 교회 역할에 대해 발표했으며, "중부 유럽 역사는 국가 간의 갈등, 불의, 쓰라린 기억들로 가득하다."면서 "그 때문에 가톨릭교회는 민족들의 화해를 위해 일하라는 성소를 느낀다."고 말했다.



141. 2019 한반도평화나눔포럼 특별 대담(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2019. 8. 20)

한홍순 대사의 사화로 구스만 카리키리(교황청 라틴아메리카위원회 부의장), 리디세 마리아 고메스 망고(전 사피엔자대 교수)의 특별 대담이 진행됐다. 리디세 마리아 고메스 망고 교수는 "평화교육은 가정 안에서 시작한다."면서 "가정이 평화를 이룬 사회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42. 2019 평화나눔포럼(교구청, 2019. 12. 13)

평화나눔연구소는 '평화적 관계 맺기 : 개인, 사회, 국가'를 주제로 개인에서 사회, 국가로 넓혀지는 평화의 여정에서 관계 맺기를 통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나갈지 찾아보는 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타자와의 조우,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 발표자인 최진우 교수(한양대학교), 신정환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신난희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좌장 조정환 신부(청파동분당), 토론자 한준성 연구교수(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김봉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강미진 기자(데일리NK)이다.



143. 2019 DMZ 국제청년 평화순례(2019. 8. 16~22)

국제 청년 평화순례에 참가한 청년들이 고성 DMZ 박물관 관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들은 두타연을 비롯해 철원 DMZ 평화의길, 철원생태공원, 십자탑 등을 순례했으며 평화토론, 북한이탈주민 청년과의 토크쇼, 한반도 평화 촛불 예식 등에 참여했다.

2020



144. 북한이탈주민 젊은이 피정(성북동 복지 사랑 피정의 집, 2020. 2. 15~16)



145.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25주년 미사(명동대성당 소성당, 2020. 3. 3)

민족화해위원회는 명동대성당에서 발족 25주년 기념미사와 기념행사를 계획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미사만 간소하게 봉헌했다.



146. 2020 한반도평화나눔포럼(제주 서귀포, 2020. 11. 21)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초불확실성 시대의 팬데믹과 평화'를 주제로 개최된 포럼에서 참석자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질병 거버넌스', 두 번째 세션은 '화해와 일치를 위한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평화', 세 번째 세션은 '초불확실성 시대 평화를 위한 가톨릭 교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한 한영만 신부(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장)는 "팬데믹 상황에서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기준이 요구되고 실행돼야 한다."며 "이는 연대성에 기초한 것이며,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애덕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팬데믹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공동선의 촉진"이라고 말했다.

147. 코로나 시국에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명동대성당, 2020. 12. 1)

코로나19로 미사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었다. 일시 재개된 미사에서 사제와 신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 세정제로 소독한 후 성당에 들어가 1-2m 간격을 두고 번호표가 붙은 자리에 앉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148.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명동대성당, 2021. 6. 25)



149. 2021 한반도평화나눔포럼(강원도 고성, 2021. 11. 15-19)

‘조선대목구 설정 190주년, 1831의 기억과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개최된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190년간에 걸친 한국 가톨릭 여정의 평화적 의미를 돌아보았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교회가 걸어온 남북한 교류와 평화 문제를 짚었다.



150. 2021 DMZ 국제청년평화순례(2021. 11. 15-19)

국제청년평화순례에 함께한 청년들이 철원 노동당사와 고성 DMZ 박물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세 속에서 진행된 2021 DMZ 국제 청년평화순례는 매일 조별로 참가자를 달리하여 '무박 5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에서 서해 강화도와 교동도 서부전선까지 순례했다.

2022

151. 2022 DMZ 국제청년평화순례 독도&DMZ(2022. 8. 16-22)

7개국 58명의 청년들이 독도에 방문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년 국제청년평화순례는 DMZ는 물론 독도, 울릉도까지 순례하며 분쟁과 갈등, 평화를 체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날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학교)의 '독도 알기' 강역에 이어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을 탐방하고 울릉도 나리분지와 깃대봉 등지를 순례했으며, 독도에 상륙하여 정상까지 오르기도 했다.





152. 2022 한반도평화나눔포럼(가톨릭대 성신교정 진리관, 2022. 11. 26)

‘한반도 화해를 위한 가톨릭의 평화 인식과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선 21세기 한반도와 세계 평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톨릭의 역할을 성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평화의식 조사 : 천주교인들의 신앙심과 평화 인식’,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 현안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평화의 여정’을 다루었으며,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톨릭의 역할’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2023



153. 평화나눔연구소 창립 8주년 기념 세미나(교구청, 2023. 3. 30)

‘정전 70년의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종합토론이 열리고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며 정전체제 70년을 맞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논의됐다. 김병로 교수(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구상이 없었음을 비판하며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는 나의 피해만이 아니라 상대의 피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154. 2023 세계 평화의 바람, DMZ 국제청년평화순례(2023. 8. 7-11)

‘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2코린 13,11)’를 주제로 진행된 순례 참가자들이 월정리역 일대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고 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순례 기간을 ‘망향의 날, 일치의 날, 분단의 날, 생태의 날, 평화의 날’로 각각 의미를 부여하고, DMZ 접경지역 일대를 순례하며 한반도 분단 현실과 평화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155. 2023 한반도평화나눔포럼(가톨릭대 성신교정 진리관, 2023. 11. 18)

남북 사이 인적 왕래와 교역이 전혀 없는 '남북관계 제로의 시대'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 북한의 무력 도발 또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첫 번째 세션은 '화해와 평화에 이르는 가톨릭의 가르침과 걸어온 길'을, 두 번째 세션은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화해의 길'을 다루었다.



156. 한국교회사연구소와 업무 협약(한국교회사연구소 2023. 12. 4)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우)는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조한건 신부(좌)와 「민족화해위원회 30주년사」 간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두 기관은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기도운동과 나눔, 연구, 교육 등 실천적인 활동을 해 온 민화위가 30주년을 맞아 교회에서 역할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간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업무 협약을 맺었다.

2024



157. 청년 평화 감수성 피정(삼양동 도미니코수도회 수도원, 2024. 2. 24-25)

‘청년 평화 감수성 피정’에 참여한 청년들이 정수용 신부와 찬양하며 입당 예식을 봉헌하고 있다. 청년들의 일상 안에 작은 평화를 심어주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에서 청년들은 오감으로 평화를 체험하고, 평화에 대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평화 콘서트’도 함께했다.



158. 평화나눔연구소 5기 연구위원 임명(교구청, 2024. 3. 15)

연구소 5기 연구위원들이 위촉식이 끝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위촉장 수여식에서 소장 정수용 신부(민족 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앞줄 왼쪽 두 번째), 부소장 임강택(전 통일연구원장, 앞줄 오른쪽 두 번째)을 임명하고, 10명의 연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장 수여식에서 새 연구위원들은 북한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59. 2024 평화의 바람 기행(DMZ 일대, 2024. 4. 13-14)

평화의 바람 기행에 참여한 신자들이 북한군 묘지 앞에 서서 정수용 신부(민화위 부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10대 초등학생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가하여 일상에서 겪는 갈등과 화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60. 평화나눔연구소 창립 9주년 기념 세미나(교구청, 2024. 5. 3)

평화나눔연구소가 '한반도 분단 극복과 화해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임을출 교수(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 화해와 일치를 위한 교회의 역할' 주제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회 내 청년들에 대한 전체 교회 차원의 북한 이해, 화해와 일치 증진, 이에 기반한 복음화 전략 등을 담은 중장기적인 교회의 청사진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161. 2024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심포지엄(가톨릭회관, 2024. 6. 20)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민족화해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기독교교회와 평화교육'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종합토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아 교수(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서정 박사(가톨릭대학교), 김남희 교수(가톨릭대학교), 김선 교수(KAIST G-School)이다.



162. 2024 북한민 가족여행(2024. 5. 25-26)

해미국제성지에서 2024년에 세례받은 북한민 신자들과 가족들에게 정수용 신부가 순례지를 설명하고 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해미를 시작으로 갈매꽃순교성지, 요나성당을 방문하여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앙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신앙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163. 2024 한반도평화나눔포럼(명동대성당 코스트홀, 2024. 11. 15)

‘평화를 향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포럼은 ‘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한반도 갈등 해소를 위한 교회의 인식’, ‘청년과 함께하는 평화 증진의 길’이란 주제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의 북향민 청소년의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 ‘피아노와 함께하는 청년 평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2025



164. 민족화해위원회 30주년 감사 미사와 기념 행사를 알리는 배너(2025. 3.12)



165.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30주년 기념 감사미사와 봉정식(명동대성당, 2025. 3. 12)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기념 미사를 봉헌하였다. 미사 중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30년사」를 봉정하였으며, 초대 위원장 최창무 대주교, 1999년부터 제2대 본부장으로 활동한 정광웅 신부, 2003년 하나원에서 신앙을 접한 뒤 민족화해위원회 직원으로 꾸준히 활동해 온 김미경(프란치스카 로마나) 씨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166. 미사 후 기념 촬영

아랫줄 왼쪽부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장 박현동 아빠스,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 최창무 대주교, 염수정 추기경,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전 위원장 이기현 주교이다. 윗줄 왼쪽부터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 백승영 수녀와 황정숙 수녀(투스징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대구수녀원), 오혜정 수녀(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오태순 신부, 정광웅 신부, 사무국장 이종화 신부이다.



167. 화해·평화학교 개강(서울대교구 영성센터, 2025. 3. 19)

화해평화학교는 한반도의 화해·평화와 일치를 위해 교회가 강조하는 바를 교회 구성원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전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진행한 1995년의 <민족화해학교>, 2004년의 <민주시민교육>, 2014년의 <평화나눔학교>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었다.



168. 화해평화학교 수료미사(명동대성당 패밀리아 채플, 2025. 5. 14)

총 10주의 과정을 마치고 화해평화학교 수료미사가 정수용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이날 미사에는 수료자 33명이 함께하여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친 기쁨을 나누었다.



169. 2025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명동대성당, 2025. 6. 22)



170.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 기념학술회의(서울대교구 영성센터, 2025. 6. 22)
 정순택 대주교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민족화해위원회의 역사와 남북관계의 흐름을 짚어보고 향후 교회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는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정순택 대주교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의 평화와 화해, 일치를 이루지 못한 현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출범한 민족화해위원회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발표자들과 토론자 모두 교회 안팎의 다양한 시각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다루었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Photographic Contents

1995

1. Inauguration of the Seoul Archdiocesan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Conference Room, Seoul Archdiocesan Office, February 28, 1995)
2. First Mass for the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People (Myeongdong Catholic Cathedral, March 7, 1995)
3. Opening of the 1st Cohort of Phase 1 at Korean People's Reconciliation School (Myeongdong Cathedral Cultural Center, October 4, 1995)
4. New York Seminar for Korean Catholics from the South and the North (Hilton Hotel, Fort Lee, New Jersey, USA, October 27–November 2, 1995)

1996

5. First Anniversary Mass of 'Mass for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People' (Myeongdong Cathedral, March 5, 1996)
6. Plaque Unveiling Ceremony of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Catholic Center, Myeongdong, August 13, 1996)
7. Handover Ceremony of Funds Raised from 'Noodle Sharing for North Korean Compatriots' Campaign (Korean Red Cross, December 30, 1996)

1997

8. Opening of the 1st Cohort of Phase 2 at Korean People's Reconciliation School (Myeongdong Cathedral Cultural Center, March 19, 1997)
9. Nationwide Campaign to Send 10,000 Tons of Corn to Aid North Korean Compatriots (in front of Commercial Bank, Myeongdong, March 28, 1997)
10. Handover Ceremony of Funds from the 'Campaign to Send Potatoes to Aid North Korean Compatriots' (Pyeongchang County Office, Gangwon-do, March 31, 1997)
11. Handover Ceremony of the First Shipment from the 'Nationwide Campaign to Send 10,000 Tons of Corn to Aid North Korean Compatriots' (Dandong Railway Station, China, May 20, 1997)
12. Beijing Seminar for Korean Catholics from the South and the North (Kempinski Hotel, Beijing, China, June 4–7, 1997)
13. Handover Ceremony of Funds to Aid North Korean Compatriots to the Korean Red Cross (Korean Red Cross, December 24, 1997)

1998

14. 'First Global Day of Fasting with the Pope' Corn Shipment Handover Ceremony (Dandong Railway Station, China, April 27, 1998)
15. Special High Mass for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People (Myeongdong Cathedral, August 23, 1998)

16. First Pastoral Visit to North Korea by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May 11–22, 1998)
17. Bishop Andreas Choi Chang-mou and Chairman Samuel Jang Jae-cheol of North Korean Catholic Association at Sunan Airport
18. Commemorative Group Photo at Jangchung Cathedral
19. Exchange of Letter of Intent with the Korea Asia-Pacific Peace Committee for Food Aid (Dalian, China, September 17, 1998)
20. Official Integration Launch of Seoul Archdiocesan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with the Reunification Pastoral Committee (Small Conference Room, Archdiocesan Office, November 28, 1998)
21. Visit to North Korea for Medical Aid Preparations (December 12-15, 1998)

1999

22. Charity Concert for North Korean Children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September 22, 1999)

2000

23. Gathering of Korean Catholics from the South and the North (Kempinski Hotel, Beijing, China, 27-29 March, 2000)
24. Blessing Ceremony for Food Aid Donations for Korean Reconciliation (Primorsky Krai, April 13, 2000)
25. 5th Anniversary Workshop of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Conference Room, Archdiocesan Office, May 13, 2000)
26. Nationwide Symposium for Reconciliation and Unity of Korea (Auditorium, Songsin Campu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June 10, 2000)
27. Gathering of Priests with Interest in North Korean Mission (Veritas Hall Auditorium, Songsin Campu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July 5, 2000)
28. Visit to North Korea to Verify the Status of Aid Supplies (July 8-15, 2000)
29. First Haimo Summer Camp (Korea Tire Training Center, Geumsan, Chungcheongnam-do, August 4-6, 2000)
30. Purchase of 2,000 Tons of Corn for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Changchun, China, August 17-19, 2000)

2001

31. Visit to North Korea for Discussions on Support for Noodle Factory and Cooperative Farms (March 20-24, 2001)

- 32. Blessing Ceremony for Supplies to Establish the Nampo Noodle Factory (Incheon Port, July 11, 2001)
- 33. Blessing Ceremony for Nampo Noodle Factory (Nampo, Pyeongannam-do, July 21, 2001)
- 34. Haimo Summer Camp (Daeseongri, Gyeonggi-do, July 27-29, 2001)

2002

- 35. General Assembly of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Conference Room, Archdiocesan Office, February 23, 2002)
- 36. Visit to North Korea for On-Site Inspection of Noodle Factory (April 6-13, 2002)
- 37. Preparations for Corn Aid (Harbin, China, August 2, 2002)
- 38. Unification Concert for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People (Marian Garden, Myeongdong Cathedral, August 14, 2002)
- 39. Ven. Pomnyun Sunim Donates His Magsaysay Award Money for the Support of Sinchon Noodle Factory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September 10, 2002)

2003

- 40. First Official Visit of North Korean Catholics to Myeongdong Cathedral since the Division of Korea (Myeongdong Cathedral, March 2, 2003)

2004

- 41. 9th Anniversary Seminar of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Catholic Center, March 27, 2004)
- 42. Aid for Victims of Train Explosion at Ryongchon Station (Korean Red Cross Headquarters, May 4, 2004)
- 43. Visit to North Korea on Agricultural Machinery Aid (May 15-18, 2004)
- 44. 'Tractors of Love' to be Sent to North Korea (Daedong Machinery Gwangju Factory, July 12, 2004)
- 45. Joint Ancestral Rite and Memorial Mass for North Korean Defectors on Chuseok (Dora Observatory, September 25, 2004)
- 46. Hanmaeum Family Camp (Hanmaeum Training Center, Uijeongbu, October 30-31, 2004)
- 47. 500th Mass for the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People (Myeongdong Cathedral, December 7, 2004)
- 48. Christmas and Year-End Celebration with North Korean Defectors (Pastoral Center for Labor, Bommundong, December 26, 2004)

2005

- 49. 10th Anniversary Mass and Event of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Myeongdong Cathedral, March 1, 2005)
- 50. Blessing Ceremony for 'Seedbed Vinyl Film of Love' (Inter-Korean Transit Office, Goseong Unification Observatory, March 25, 2005)
- 51. Fundraiser for North Korean Children (Woori Bank Catholic Center Branch, Myeongdong, April 1, 2005)
- 52. Experiential Event on the Division of Korea for Donors (Dora Observatory, October 19, 2005)
- 53. Visit to the Children's Supplements Production Facility in Pyongyang (November 29-December 3, 2005)
- 54. Blessing Ceremony for the Remodeled Office of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Catholic Center, December 29, 2005)

2006

- 55. Haimo Youth Group's Lunar New Year's Day Event (Franciscan Education Center, Jeongdong, January 28, 2006)
- 56.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he Church of Repentance and Atonement and the Peace & Unity Center (Paju, Gyeonggi-do, April 8, 2006)
- 57. Donor Members' First Visit to North Korea (April 26-29, 2006)
- 58. Blessing Ceremony for the Donation of Raw Materials for Children's Supplements Production (May 26, 2006)
- 59. Visit to North Korea to Assess the Status of Flour and Children's Supplements Raw Materials Donations (July 21-25, 2006)
- 60. Topping Out Ceremony for the Church of Repentance and Atonement (Paju, November 27, 2006)
- 61. Visit to Pyongyang for Christmas Celebrations (December 23-26, 2006)

2007

- 62.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he Peace & Unity Center (Paju, March 21, 2007)
- 63. Reopening of Korean People's Reconciliation School (Catholic Center, April 13-May 18, 2007)
- 64. Blessing Ceremony for 'Doctor's Bags of Love' (Shinwon Logistics Storage Warehouse, Seongnam, August 17, 2007)
- 65. Haimo Summer Camp (Yangji Youth Training Center, Yongin, August 15-17, 2007)
- 66. Blessing Ceremony for Flood Relief Aid Supplies (Incheon Port, September 11, 2007)
- 67. Visit to North Korea for On-Site Inspection of the Sinchon Soybean Oil Factory and People's Hospital (October 27-30, 2007)

68. Second Session of Korean People's Reconciliation School (Catholic Center, November 2-December 7, 2007)

2008

69. Advanced Course at Korean People's Reconciliation School (May 26-June 30, 2008)
70. Haimo Summer Camp (Marine Tourism, Leisure and Sports Cent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amcheok Campus, August 15-17, 2008)
71. Blessing Ceremony for the 'Yangcheon House of Peace' 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Yangcheon, Seoul, November 21, 2008)

2009

72. 10th Haimo Anniversary Event with Mass (Myeongdong Cathedral Cultural Center, April 17, 2009)
73. Donor Recruitment for Seoul Archdiocesan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Sincheondong Church, May 9-10, 2009)
74. Training Program on Rural Resettlement and Cooperative Business Startups for North Korean Defectors (Catholic Center, September 12, 2009)
75. Infant Formula Aid for Children (Hamgyongbuk-do, December 25, 2009)

2010

76. Caregiver Training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Archdiocesan Office Annex, Oct. 1, 2010)
77. 'Flour of Love' Aid (Dandong, China, November 4-6, 2010)

2011

78. Blessing Ceremony for Flour Donation for 'Catholic Love Sharing' Emergency Food Aid to North Korea (Bongdong Station Yard, Kaesong, October 12, 2011)
79. Joint Visit to North Korea by Priests from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s in Each Diocese (November 29-December 2, 2011)

2012

80. 'Blow, Wind of World Peace' (July 28-August 3, 2012)

2013

81. First Mas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Catholic Community's Rosary Group (House of Daegun, Dongsomundong, May 19, 2013)
82. Dedication Ceremony for the Church of Repentance and Atonement (Paju, June 25, 2013)
83. Special Mass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Small Chapel, Myeongdong Bishop's Residence, July 21, 2013)

2014

84. Standing Committee Meeting of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Archdiocesan Office Annex, March 21, 2014)
85. Visit to Hanawon (Re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seong, April 27, 2014)
86. Special Mass for Separated Families (Myeongdong Cathedral, May 20, 2014)
87. First Pastoral Visit to Kaesong by the Archbishop of Seoul (Kaesong Industrial Complex, May 21, 2014)
88. Dedication Ceremony for the Peace & Unity Center (Paju, July 5, 2014)
89. Presenting 'The Crown of Thorns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People' to Pope Francis (Myeongdong Cathedral, August 17, 2014)
90. DMZ Train Journey 'In Search of Peace' (Baengmagoji, Cheorwon, October 28, 2014)
91. Introductory Course at Peace-Sharing School (Archdiocesan Office, November 6-December 11, 2014)

2015

92. 1,000th Mass for the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People (Myeongdong Cathedral, January 6, 2015)
93. Opening Ceremony of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s Peace-Sharing Institute and Commemorative Peace Talk (Familia Chapel, Myeongdong Cathedral, March 24, 2015)
94. 2nd Cohort of the Peace-Sharing School (Archdiocesan Office Annex, May 21-July 9, 2015)
95. Agreement Signing Ceremony for Support for the Reconciliation and Peace of Korea on the 70th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and Division (Main Conference Room, Archdiocese Office, June 22, 2015)
96. First Anniversary Mass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Franciscan Society' (Familia Chapel, July 24, 2015)
97. Historical Tour of the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for the 70th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August 16-21, 2015)

- 98. Inaugural Mass and Launching Ceremony for 'Keeping in My Heart a Parish in the North' Movement (Coste Hall, Myeongdong Cathedral, November 24, 2015)
- 99. Kaesong Industrial Complex's Rosary Group Sign up for the 'Keeping in My Heart a Parish in the North' Movement (House of Daegun, December 6, 2015)
- 100. First Peace-Sharing Forum (New Archdiocesan Office Building, December 11, 2015)
- 101. 2015 Christmas Celebr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Francisco Hall, Myeongdong Cathedral, December 19, 2015)

2016

- 102. Inaugural Mass for 'Thomas Society' (Small Chapel, Coste Hall, February 17, 2016)
- 103. First Anniversary Seminar of Peace-Sharing Institute 'Seeking the Path of Peace in Christ' (Archdiocesan Office, March 31, 2016)
- 104. Seoul Cultural Tour for Hwacheon Hanawon Trainees (Seoul, May 26, 2016)
- 105. Marian Nigh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arian Garden, Myeongdong Cathedral, May 31, 2016)
- 106. 'Keeping in My Heart a Parish in the North' Photo Exhibition (1898 Plaza, June 10-July 3, 2016)
- 107. 2016 DMZ World Youth Peace Pilgrimage (DMZ, Paju, August 13-19, 2016)
- 108. 2016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Songsin Campu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ugust 19-22, 2016)
- 109. 2016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Special Dialogue (Familia Chapel, August 22, 2016)
- 110. 'The Path to Peace' Support Program for Priestly Formation for Unification Pastoral Ministry (October 16-21, 2016)
- 111. 2016 Peace-Sharing Forum (New Archdiocesan Office, December 9, 2016)

2017

- 112. Sisterhood Established between Pyongyang and Banja Luka Dioceses (St. Bonaventure Catholic Cathedral, January 7, 2017)
- 113. Joint Academic Conference by Peace-Sharing Institute and Hanyang Peace Institute (Sokcho, Gangwon-do, February 11-12, 2017)
- 114. Youth Retreat for North Korean Defectors (Seton Retreat House, February 11-12, 2017)
- 115. Unitas Choir Founded (Myeongdong Cathedral, March 7, 2017)
- 116. Mass Commemorating the 90th Anniversary of Pyongyang Diocese (Myeongdong Cathedral, March 18, 2017)

- 117. Second Anniversary Seminar of Peace-Sharing Research Institute (New Archdiocesan Office, March 30, 2017)
- 118. Marian Nigh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edicated to Our Lady of Fatima (Marian Garden, Myeongdong Cathedral, May 8, 2017)
- 119. Opening of 'Good Parent School' for North Korean Defectors (Archdiocesan Office Annex, July 23, 2017)
- 120. Cultural Tour 'Overnight Train Journey' for North Korean Defectors (Jeongdongjin, Gangwon-do, May 20-21, 2017)
- 121. Mas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Commemoration of the Centenary of the Apparitions of Our Lady of Fatima (Myeongdong Cathedral, June 25, 2017)
- 122. 2017 'Wind of Peace' DMZ World Youth Peace Pilgrimage (August 14-20, 2017)
- 123. Joint Academic Conference by Peace-Sharing Institute and Hanyang Peace Institute (Sisters of The Mother of Jesus Cloistered Convent, August 26, 2017)
- 124. 2017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Songsin Campu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November 3-6, 2017)
- 125. Participants of the 2017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visiting Panmunjom (November 3, 2017)
- 126. 2017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Special Dialogue (Familia Chapel, November 6, 2017)

2018

- 127. Joint Academic Conference by Peace-Sharing Institute and Hanyang Peace Institute (Seorak, Gangwon-do, February 24-25, 2018)
- 128. Third Anniversary Seminar of Peace-Sharing Institute (Archdiocesan Office, March 22, 2018)
- 129. Mass for the Success of Inter-Korean Summit (Myeongdong Cathedral, April 24, 2018)
- 130. Marian Nigh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arian Garden, Myeongdong Cathedral, May 31, 2018)
- 131. Prayer Rally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tephen Hall, Dongsung High School, Hyehwadong, June 23, 2018)
- 132. 2018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Songsin Campu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ugust 31-September 5, 2018)
- 133. 2018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Special Dialogue (Familia Chapel, September 3, 2018)
- 134. Participating Prelates' Visit to Panmunjom (September 4, 2018)
- 135. Peace-Sharing Institute's Academic Symposium (Archdiocesan Office, October 12, 2018)

2019

- 136. Joint Academic Conference by Peace-Sharing Institute and Hanyang Peace Institute (Yangyang, Gangwon-do, February 23, 2019)
- 137. Special Mass for the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Korean People (Myeongdong Cathedral, March 5, 2019)
- 138. 4th Anniversary Seminar of Peace-Sharing Institute (Archdiocesan Office, March 8, 2019)
- 139. Unitas Volunteer Program in Mongolia (Ulaanbaatar, Mongolia, July 22-29, 2019)
- 140. 2019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Songsin Campu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y 17-20, 2019)
- 141. 2019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Special Dialogue (Familia Chapel, August 20, 2019)
- 142. 2019 Peace-Sharing Forum (Archdiocesan Office, December 13, 2019)
- 143. 2019 DMZ World Youth Peace Pilgrimage (August 16-22, 2019)

2020

- 144. Retreat for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Blessed Korean Martyrs Retreat House, Seongbukdong, February 15-16, 2020)
- 145. 25th Anniversary Mass of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Small Chapel, Myeongdong Cathedral, March 3, 2020)
- 146. 2020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Seogwipo, Jeju, November 21, 2020)
- 147. Mass for the National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People Hel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yeongdong Cathedral, December 1, 2020)

2021

- 148. Mass for the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People (Myeongdong Cathedral, June 25, 2021)
- 149. 2021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Goseong, Gangwon-do, November 15-19, 2021)
- 150. 2021 DMZ World Youth Peace Pilgrimage (November 15-19, 2021)

2022

- 151. 2022 DMZ World Youth Peace Pilgrimage: Dokdo & DMZ (August 16-22, 2022)
- 152. 2022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Veritas Hall, Songsin Campu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November 26, 2022)

2023

- 153. 8th Anniversary Seminar of Peace-Sharing Institute (Archdiocesan Office, March 30, 2023)
- 154. 2023 'Wind of Peace' DMZ World Youth Peace Pilgrimage (August 7-11, 2023)
- 155. 2023 Korea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Veritas Hall, Songsin Campu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November 18, 2023)
- 156. Partnership Agreement with The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The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December 4, 2023)

2024

- 157. Peace Sensitivity Retreat for Youth (Dominican Monastery, Samyangdong, February 24-25, 2024)
- 158. Appointment of the 5th Cohort of the Peace-Sharing Institute Research Fellows (Archdiocesan Office, March 15, 2024)
- 159. 2024 'Wind of Peace' Tour (DMZ Area, April 13-14, 2024)
- 160. 9th Anniversary Seminar of Peace-Sharing Institute (Archdiocesan Office, May 3, 2024)
- 161. 2024 Symposium for the 'Day of Prayer for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Korean People' (Catholic Center, June 20, 2024)
- 162. 2024 North Korean Defector Family Trip (May 25-26, 2024)
- 163. 2024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Coste Hall, November 15, 2024)

2025

- 164. Banner for the 30th Anniversary Mass of Gratitude and Commemorative Event of the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March 12, 2025)
- 165. 30th Anniversary Mass and Book Dedication Ceremony of the 30-Year History of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Archdiocese of Seoul (Myeongdong Cathedral, March 12, 2025)
- 166. Commemorative Photo after the Mass
- 167. Opening of the Reconciliation and Peace School (Seoul Archdiocese Spirituality Center, March 19, 2025)
- 168. Completion Mass of the Reconciliation and Peace School (Familia Chapel, Myeongdong Cathedral, May 14, 2025)
- 169. 'Day of Prayer for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Korean People' Mass (Myeongdong Cathedral, June 22, 2025)
- 170. 30th Anniversary Academic Conference of the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Archdiocese of Seoul (Spirituality Center, June 22, 2025)